

# 해빙기 안전사고로 10년간 41명 사상

행정안전부는 2월~3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겨우내 땅 속에 스며들었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지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붕괴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72건이며 41명(사망 16명·부상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지만 비중 면에서 보면 절개지나 건설공사장 등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위

## 붕괴·낙석 등 안전사고 총 72건 발생

### 2월~3월 기온 큰폭 올라 지반 약해져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절개지가 51%(37건)로 가장 많았고 축대와 옹벽이 20%(14건), 건설공사장이 18%(13건)순으로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장소 측면에서 보면 85%(35명)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공사 현장에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도로변 낙석이나 건물 붕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져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를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집 주변의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비위나 흙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공사가 진행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의 자재를 쌓아두지 않는다.

정윤환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해빙기에는 생활 주변의 축대·옹벽 등의 시설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시

## 순천국유림관리소, 명품

### 숲 조성 110억 원 투입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국유림을 활용해 산촌을 활성화하고 산림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국비 1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2일 순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전남 동부권 9개 시군의 산림지역에 예산을 들여 경제림 단지를 육성하고 산림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산림보호와 나무심기, 숲 가꾸기, 사유림 매수 및 사방사업 등의 산림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건강하고 가치 있는 명품 숲 조성을 목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 1140ha, 조림사업 131ha를 비롯해 소나무재선충병 및 참나무수목음병 등 산림 병해충 예방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맞춰 취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고 간접 고용인원 등 연간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민의 삶을 위해 쾌적한 녹색 공간을 확충하고 산림 복지제합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돕기 위한 유아 숲 체험원을 순천시와 화순군에서 연중 운영하고,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 제공을 위해 주민 생활권 내 도시 숲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강화해 산불 예방에 나서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림 4개소를 시공해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수한 산림자원과 산촌 주변의 국유림을 활용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절저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봄 옷 준비해요** 포근한 날씨를 보인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의류매장에 봄옷이 걸려있다. 이날 낮 동안은 포근하지만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 정부, 6000개 초등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나선다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주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지자체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특히 전국 8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학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지역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 위반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유해요인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poin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뉴스시

## 시리아 동구타 대량 살상에 의료난

"병원이 피로 넘쳐 나고 있다. 어떻게든 환자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

시리아 동구타에서 정부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겨우 며칠 만에 300명 넘게 숨지고 약 1000명이 다치면서 이미 열악한 현지의 의료 환경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들이스트아이(MEE)는 21일(현지시간) 동구타의 병원들이 밀려드는 부상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물론이고 의약품과 진료 장비, 전기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말리크 박사는 "부상자들을 나를 앰بول런스가 부족하다. 많은 이들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지고 있다"며 "한꺼번에 환자 15~20명을 봐야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실명을 모두 밝히길 거부한 그는 "가족, 친구, 동료 의료진 그 게 누구든 우리는 가능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계속 해야 한다"며 "한 명이라도 더 살린다면 우리로서 큰 성취"라고 말했다.

다마스쿠스 의료 센터의 모하마드 살람 박사는 의료 장비가 대부분 파손돼 병원 여건이 매우 원시적이라며 "지하로 시설을 옮기고 있다. 장비도 전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사 리다 박사는 "의료진은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 화요일에만 수술 10건을 했다.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이도 있다"며 "우리가 볼 때 (공습의) 주요 표적은 민간인"이라고 말했다.

정부군은 이날 들어 빈군의 마지막 거점인 동구타 공습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동구타는 2012년 12월부터 정부군 봉쇄 아래 있어 이미 식량난과 의료난이 심각한 상태였다.

구호 단체들은 정부군의 공습이 심해지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으며, 이대로라면 검사를 수 없는 재앙이 빚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미리안 가세리 시리아 대표는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 6년간 美 학교서 총기난사 290건 발생

지난 6년간 미국의 학교에서 총 290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약시오스가 총기규제 옹호 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교직원인 14명이고, 부상자를 입은 교직원은 5명으로 집계됐다.

약시오스는 지구상 어디에도 미국처럼 이러한 총기난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총 290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했다. 일주일당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올해만해도 17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 조사기관인 '어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학생수가 줄었고, 학생의 시험점수도 5%나 하락했다.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는 "미 전역은 총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페루서 계곡으로 버스 추락 44명 사망

페루 남부에서 21일(현지시간) 2층 버스 한 대가 200m 계속 아래로 추락해 최소 44명이 사망했다.

페루 고속도로순찰대의 호르헤 카스티요 대장은 AP 통신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4명 정도가 부상을 입어 군 헬기편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페루 남부 태평양 연안의 오크나 리버 입구의 판아베리간 고속도로에서 밤 12시가 조금 넘어 발생했다. 사고 버스는 레이 라티노사 소속이다.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페루에서는 운전 부주의와 산악 지역 도로에 대한 정비 소홀로 매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5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 페루에서 40년 래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검진

영양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건강검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 받은 사람
심혈관 질환 발생률	42%p 감소	
암 발생률	18%p 감소	

\*본표는 건강검진 참여율이나, 미리 미리 건강 챙기세요.